

## 사설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모시여 공화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조선반도에서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기운이 전례없이 높아가고 국제무대에서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가 비상이 높아진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지금 이 시각 창공높이 휘날리는 람홍색공화국기를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은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에 넘쳐있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위업을 받들어 이 땅우에 기어이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울 열의에 넘쳐있다.

지금으로부터 70년전인 주체37(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의 선포는 민족의 반만년 역사에 처음으로 자주의 나라, 인민의 나라가 일떠섰음을 알리는 력사의 장엄한 봄우뢰였으며 민족운명개척의 밝은 앞길을 열어놓은 특기할 력사적사변이었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이 당당한 자주독립국가가 되고 이 땅의 인민들은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존엄높은 인민으로, 주권을 자기 손에 들어 쥐고 자체의 힘으로 창조와 건설을 해 나가는 슬기로운 인민으로 되었다.

창건후 공화국이 걸어온 지난 70년의 력사는 절세위인들을 모시여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온 자랑찬 로정이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영원한 주석이다.

피어린 항일혈전으로 나라를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을 창건하시어 진정한 자기의 국가를 가지려던 인민의 세기적꿈을 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공화국을 이끌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었고 벽돌 한장 성한것 없던 전후의 조선에 천리마의 역센 나래를 펼쳐주시었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국가활동에서 언제나 인민을 첫자리에 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공화국은 인민이 주인이 되고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로 세계에 빛을 뿌릴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시여 공화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드셨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과 위업을 이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심단결을 강국건설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시고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었다. 조국안에 가장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시기 제국주의련합체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속에서 선군정치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비상이 높으셨었다. 최악의 역경속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가 열려지고 새로운 혁명적대오의 불길속에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다져졌으며 공화국이 불패의 군사강국의 지위를 당당히 올라서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특출한 업적이다.



오늘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창조와 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전진시켜오신 부강조국건설위업을 받들어 공화국을 존엄높고 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이 현실로 실현되는 지상락원으로 만드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은 앞날에 대한 확고한 심심과 활력에 넘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혼연일체가 된 천만군민의 애국열정의 분출로 가장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도 세계를 놀래우는 비약과 혁신이 연이어 이루어지고 번영의 창조물들이 우후순서처럼 일떠서는 신화적인 기적이

창조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은 세계적인 전략학자의 지위에 올라서게 되고 세계의 정치흐름을 주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범한 구상과 전략적결단, 넓은 포용력, 무비의 담력, 탁월한 령도에술에 의해 두 차례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판문점선언이 발표되어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조미관계에서도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있다. 참으로 우리 민족의 력사에 오늘처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이르고 민족의 존엄과 지위가 만방에 떨쳐진적은 일찌기 없었다. 공화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대세가 비할바없이 굳건해지고 국제적지위와 영향력이 비상이 강화되게 된것은 자주

를 생명으로 내세우시고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절세의 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였기때문이다. 공화국은 자주로 강한 나라이다. 세상에선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 창건된 첫날부터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자기의 길을 따라 승리와 번영의 년륜을 새겨온 나라는 공화국밖에 없다. 공화국은 천만군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강국이다. 일심단결은 주체조선의 생명이고 비약의 원동력이다. 민족사에 특기할 대장기, 대사변들도 일심단결에 의하여 이룩되고 이 땅에 천지개벽을 안아오는 창조와 변혁의 영웅사사시도 군민대단결에 의하여 수놓아지고있다. 세상에선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지만 천만군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천

결단결의 성세를 이루고 령도자와 사상도 뜻도 발걸음도 같이하는 나라는 오직 공화국뿐이다. 령도자를 중심으로 천만군민이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혼연일체에 공화국의 강대성의 비결이 있고 찬란한 래일이 있다. 위력한 최강의 무기인 일심단결이 있기에 공화국은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으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공화국은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강성번영의 진군로를 열어나가는 주체의 강국이다.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압박책동으로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공화국이 세인을 경탄시키는 신화적인 기적을 창조해나가고있는것은 천만군민이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고 있기때문이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만리마속

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르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자력자강의 창조물들이 수풀처럼 일떠서고있는 공화국의 모습에서 세계는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공화국인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자강의 창조정신, 과학기술의 위력은 온 나라에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이 차넘치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

세계는 공화국이 백두의 역센 기상을 안고 슬기로운 인민의 단결된 힘으로 미중유의 기적을 창조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장엄한 창조와 건설의 영웅사사시를 보고있다.

오늘 우리 겨레앞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념원을 받들어 이 땅우에 하루빨리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공화국은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는 자주와 존엄의 성새이고 영원한 애국의 기치이다. 자주와 정의의 공화국이 있어 민족의 운명도 있고 밝은 미래도 있다.

우리 겨레는 날로 악랄해지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제재와 압살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애국은 말로 하는것이 아니며 조국의 부강발전에 있는 지혜와 열정을 강그리 바치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이다.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란면 비록 해외에서 살아도 어머니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사업에 투쟁하는 기어를 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절절한 소망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사적 과제이다.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는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해나가야 한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은 평화번영의 리정표이고 통일의 리정표이다.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을 리행해나가는데서 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그 어떤 외세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해결해줄수 없다. 판문점선언에도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이 뚜렷이 반영되어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못낼 일이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서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거족적인 통일운동에 떨쳐나서야 한다.

가장 뜨겁고도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를 지니시고 이 땅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국을 일떠세우시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는 절세의 애국자, 만고의 위인을 모시여 공화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온 겨레는 회세의 위인을 모신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심심드높이 통일에국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남조선 문재인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을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9월 5일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 문재인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문재인대통령의 특사대표단으로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실장을 반갑게 맞이하시며 그들의 평양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였다.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특사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특사대표단 성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국사로 매우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을 이렇듯 빨리 따듯이 맞아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석상에서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보내온 문재인대통령의 친서를 정중히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문재인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시고 대통령이 북남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도 많은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에 대한 굳센 의지를 피력한 훌륭한 친서를 보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시며 대통령의 결심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공감한다고, 자신께서도 민족앞에 지닌 사명과 기대를 잊지 않고 힘껏 노력하여 우리 겨레에게 하루빨리 더 좋은 결실을 안겨 줄 결심에 변함이 없다는 것과 이 기회를 빌어 대통령에게 보내는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해줄것을 부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문재인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함께 고심하고 모색하며 기울인 진지한 노력과 과감한 결단들에 의하여 올해에 누구도 예측할수 없었던 극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내고 좋은 합의를 이룩함으로써 오랜 세월 이그러졌던 비극적인 북남관계를 바로잡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향한 의의있는 훌륭한 성과들을 달성한데 대하여 긍지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또한 력사상 처음으로 열린 조미수뇌상봉을 위해 문재인대통령이 바친 성심과 로고를 높이 평가하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력사적인 판문점상봉이후 북남사이에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접촉이 이루어지고 풀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실현되었으며 북남 군사회담과 공동련락사무소개설사업이

잘 진척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마련한 오늘의 이 모든 성과들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선 북남관계를 계속 탈선없이 곧바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특사대표단일행과 9월중 예정되어있는 평양수뇌상봉과 관련한 일정과 의제들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시고 만족한 합의의를 보시였다.

또한 북남관계를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것이 우리의 확고한 립장이며 자신의 의지라고 비핵화의지를 거듭 확약하시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실현을 위해 북과 남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문재인대통령의 특사대표단사이의 담화는 동포애적이며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메히고, 단마르크, 스위스, 영국, 이슬란드, 벨라리아에서 경축모임, 도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행사들은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메히고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우리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린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주체조선을 불패의 강국으로 더욱 빛내이고계시는데 대하여

##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

### 여러 나라에서 진행

언급하였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된 때로부터 장구한 기간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 막강한 국력을 갖춘 불패의 성새로 강화발전되였다. 오늘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진두에 모신 조선인민은 세인들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으며 공화국은 국제정세 흐름을 주도하는 강국으로 우뚝 솟아올랐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심으로 조선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 났을 수 있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 막강한 국력을 갖춘 불패의 성새로 강화발전되였다. 이슬란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 및 친선협회 위원장은 공화국창건 70돐을 맞는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하면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서 조국해방의 력사적업무를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참다운 인민의 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니 사회주의라적인

으로 전변시키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모신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실현할것이다.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라고 그는 말하였다. 벨라리아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발언자들은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우월한 제도이다.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단마르크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본사기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 벨라리아단체 불레진 발행

벨라리아조선친선협회가 불레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을 발행하였다. 불레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조선적인 총선거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었으며 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나라로 전변된데 대하여, 공화국의 강화발전애 쌓아올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또한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애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불레진은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력사적인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이 진행되어 북남관

계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조미관계 개선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으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였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불레진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축하 문

오늘 우리의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공화국의 국력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들을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승리를 경축하는 혁명적대경사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면적부흥의 새시대를 펼쳐며 힘차게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과시하는 역사적계기입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일흔번째의 년륜을 새기는 공화국창건일에 즈음하여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백승의 기치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통성변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것은 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이며 념원이였습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21세기의 가장 걸출한 국가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국가건설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하시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시였습니다.

동서고급의 국가건설사에는 세월의 통과속에서 국가의 본래와 국력을 견지하지 못하여 인민의 운명이 도란에 빠진 례가 적지 않게 기록되어있지만 대를 이어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우리 공화국은 승승장구의 한길만을 즐기차게 걸어왔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을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려는것을 강국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빛나게 실현하시어 주체조선의 무공변영을 위한 억년기들을 마련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국가건설과 활동을 위대한 수령님식, 위대한 장군님식대로 해나가도록 하시어 우리 공화국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사소한 침체나 좌절을 모르고 수령님들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한길로 역세계 전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술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최고직책에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들의 자주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려는것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을 채택한것은 우리 공화국의 혁명적성격과 본래를 세세년년 빛내어나갈수 있게 한 거대한 정치적사변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핵으로 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가활동전반에 철저히 구현하고 가장 우월한 인민적시책들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확대발전시켜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원의 숭고한 리념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계속 빛을 뿌리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자주, 자립, 자위의 국가건설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국가건설령도사는 어제오늘도 즐기차게 흐르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불굴의 공격정신과 강철의 단력, 불철주야의 애국헌신으로 우리 공화국의 국력을 반만년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우는 만고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의 운명과 전도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력강화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시고 이 역사적과제를 최단기간내에 수행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대진군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습니다.

인민을 위한 길에서는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어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투철한 혁명신조를 지니시고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는 주체조선의 제일국력인 일심단결이 천백배

로 다져지게 하였습니다.

청년중시를 공화국의 강화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시고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품을 들어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으로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자애로운 손길아래 천군만마와 같은 청년대군이 자라나게 되었으며 우리 공화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가방위력의 기둥이고 핵심인 인민군대를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4대전략적로선과 3대과업을 제시하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군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였으며 인민군장병들이 혁명의 붉은 총창으로 우리 인민의 창조적투쟁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침략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국가발전의 평화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전략적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결사전을 진두에서 이끄시였습니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깡그리 말살하려는 최악의 제재봉쇄속에서 보통의 담력과 의지로는 엄두도 낼수 없는 국방력강화의 대업을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견인불발의 의지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실록은 세계정치사에 전무후무한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영웅적인 애국헌신으로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마련해주시으로써 우리 후손들은 다시는 고난의 행군과 같은 처절한 고생을 겪지 않고 전쟁의 불구름을 영원히 모르게 되었으며 우리 공화국은 수십년을 앞당겨 세계가 공인하는 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천체적인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이 땅우에 전면적부흥의 활로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는것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습니다.

새 세기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의 불길을 지퍼주시고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추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선견지명에 의하여 과학교육사업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고 강국건설의 지름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세련된 령도는 전국도처에서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 과학기술전당과 려명거리,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비롯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명의 본보기,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풀처럼 일떠서게 하였으며 황금벌, 황금산, 황금해의 눈부신 새 역사를 펼쳐였습니다.

오늘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가 힘있게 추진되어 경제전반이 상승계도에 들어서고 사회주의문명창조의 빛나는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량발적으로 이룩되고있는것은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전진비약하는 주체조선의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뚜렷이 증시해주고있습니다.

천출위원의 비범특출한 령도따라 강국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한 벽찬 투쟁의 나날에 우리 인민의 리상과 포부, 창조력은 비상히 높아졌으며 세계를 앞서나가는 대비약적혁신의 불바람속에서 공화국의 종합적국력은 급속히 강화되고있습니다.

사상최대의 극악한 압박공세속에서도 몇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국가건설에서 이룩된 미증유의 거대한 성과들은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에서만 창조될수 있는 신화적인 국가건설적업입니다.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겨레를 품어안는 뜨거운 민족애와 포용력으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새로운 전환적극면을 안아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할 철석의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가 준엄한 정세속에서도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로선과 정책을 일관하게 견지하도록 하시어 우리 민족에게 조국통일의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시였습니다.

뜻깊은 올해에 련이어 진행된 북남수뇌회담들과 민족단합의 귀중한 성과들은 분열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평화와 통일, 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통이 큰 결단과

강철의 의지, 비범한 령도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민족의 아버지,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여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반드시 통성변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고 대대손손 복락을 누리게 될것이라는 확신에 넘쳐있습니다.

자주의교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출중한 정치실력과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대외적권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였습니다.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활무쌍한 대외활동에 의하여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승화발전되게 되었으며 장구한 세월 침에하게 대치하여온 조미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나가는 세계적인 사변이 이룩되었습니다.

비범한 외교지략으로 공화국의 위상을 만방에 빛내이시고 세계정치정세흐름을 주도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세계적인 지도자, 21세기의 태양으로 칭송하는 김정은열풍이 행성을 진감하고있습니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강대한 우리 공화국의 모습에서 참다운 국가건설의 진로를 찾고있으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의 앞날을 그려보고있습니다.

승리와 영광으로 찬연히 빛나는 우리 공화국의 발전행로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나라와 민족은 그 어떤 고난과 시련, 력사의 돌풍속에서도 전하위복의 기적을 창조하며 강국건설의 대업을 성취할수 있다는 철리를 확증해주고있습니다.

오늘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강대한 우리 조국이 있고 휘황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이 억척같이 자리잡고있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무궁토록 빛내어나갈 철석의 의지가 차넘치고있습니다.

우리의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건국의 아버지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세우주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우리 국가를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입니다.

우리들은 주체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며 세계가 우러르는 걸출한 위인을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것입니다.

우리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공화국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기어이 완수하고 사회주의강국의 명마루에 승리의 기발을 높이 휘날리겠습니다.

인민군장병들은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총창을 역세게 비껴들고 그 어떤 침략세력도 신성한 우리 조국의 령도, 령공, 령해를 0.001mm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며 창조와 건설의 대격전장마다에서 혁명의 주력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격대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겠습니다.

우리 일꾼들은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과 정을 심장에 가득 채우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며 가장 인민적이며 애국적인 공화국의 시책들을 철저히 집행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조국통일의 새날을 앞당겨오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과 령도를 높이 받들며 존엄높은 강국의 지위에 맞게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가리키시는 사회주의강국의 광명한 패일을 향하여 질풍같이 노드쳐나갈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백전백승의 령도따라 일심단결과 자력자강의 불가항력적위력으로 전면적부흥의 새시대를 펼쳐나가는 위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반드시 세계가 우러르는 인민의 천하제일강국으로 찬연히 빛을 뿌릴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 성스러운 70년은 무엇으로 빛나는가

9월 9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지 70돛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이날을 맞는 온 나라 인민은 위대한 조국을 가진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환희로 가슴설레이고 있다.

자기의 하늘에 람홍색 공화국기를 처음으로 띄운 때로부터 70년이 된 지금 나라의 존엄과 지위, 힘은 완전히 달라졌다. 공화국은 자주의 강국으로 빛을 뿌리고 민족의 힘과 기개는 널리 펼쳐지고 있다.

한 력사학자는 《70년이라는 한세기도 못되는 기간에, 그것도 사라졌던 나라가 다시 그 모습을 세계에 보인것도 기적이지만 거기서 상상할수 없는 도약을 이루어 현시대의 가장 튼튼하고 양양한 강국으로 솟아오른 조선은 력사에 전무후무한 신화라고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공화국의 70년력사는 절세의 위인들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 밑에 존엄높은 사회주의국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어온 승리와 영광의 력사이다.

공화국의 력사는 자주로 빛나는 력사이다.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 무엇보다 귀중한것이 자주이다. 자주는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권과 존엄을 잃으면 살아가는 목숨이고 그러한 나라는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세상에 나라는 많아도 자주로 빛을 뿌리는 나라는 공화국이다.

공화국은 창건 첫날부터 자주의 가치를 높이 추켜들었다. 국가의 로선과 정책을 하나 세위다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자기 인민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세웠으며 그 어떤 외세의 압력에도 굴함이 없이 언제나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로 말하고 자기시의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공화국이 시종일관 견지하여온 대외정책적 리념도 자주, 평화, 친선이다.

주체사상과 자주로선을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한 결과 공화국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성장에 빛을 뿌리게 되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과 우리 식대로 살아가는데 대한 방침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자주의 대강들이 있어 공화국은 한치의 탈선이나 추호의 헛갈림도 없이 주체의 한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해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살판치는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실천적 자주적대를 굽히지 않으시고 국제무대에서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민방에 펼쳐시켰다.

민족사에 오래 남아있던 사대와 교조, 굴종의 력사를 단호히 쓸장내고 자주강국으로 빛을 뿌려온 공화국의 자랑찬 력사는 자주는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부강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것을 역설히 실증해주고 있다.

공화국의 력사는 인민사랑의 성스러운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공화국정권이 이민위원을 국가건설의 근본리념으로 삼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모든 로선과 정책, 모든 활동을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한것으로 일관시켜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국호와 군대의 이름도, 기념비적창조물들의 명칭도 《인민》이라는 부름과 함께 불리우며 무



솔의 장엄한 창조대전을 벌려나가고 있다.

일심단결의 바탕에는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끝까지 받들고 따르려는 인민의 열화같은 마음이 있다.

아버이수령님께 전쟁만 이기면 북조선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락원의 녀성,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야 살길 이 열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고 말씀하신 법동농민, 종파농민들이 어찌고저찌고 해도 우리의 수령님만을 지지한다고 인민의 신념을 대변한 태성할머니...

비단 이틀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남녀노소가 년대와 세기를 이어 자기 령도자를 충정으로 받들어왔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충정다해 받드는 일심단결,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도 가져본적이 없는 일심단결로 하여 공화국은 그처럼 강하며 더 좋은 래일을 안아오기 위해 모

두가 분발하고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공화국의 70년력사는 자력자강의 힘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면서 기적과 혁신을 안아온 승리의 력사이다.

해방은 되었어도 빈터나 다름없는 땅에 새 나라를 건설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더우기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은 오랜 세월 천대와 멸시, 억눌림에 시달려온것으로 하여 사상적으로 뒤떨어져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덮어놓고 다른 나라의 본을 따려고 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다. 천대와 고역속에 멎이 든 로동자들의 힘찬 손을 따르듯이 잡아주시며 이제는 동무들이 기둥이며 주춧돌이라고 하시

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그 좋은 래일을 안아오기 위해 모

두가 분발하고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공화국의 70년력사는 자력자강의 힘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면서 기적과 혁신을 안아온 승리의 력사이다.

해방은 되었어도 빈터나 다름없는 땅에 새 나라를 건설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더우기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은 오랜 세월 천대와 멸시, 억눌림에 시달려온것으로 하여 사상적으로 뒤떨어져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덮어놓고 다른 나라의 본을 따려고 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다. 천대와 고역속에 멎이 든 로동자들의 힘찬 손을 따르듯이 잡아주시며 이제는 동무들이 기둥이며 주춧돌이라고 하시

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그 좋은 래일을 안아오기 위해 모

두가 분발하고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공화국의 70년력사는 자력자강의 힘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면서 기적과 혁신을 안아온 승리의 력사이다.

해방은 되었어도 빈터나 다름없는 땅에 새 나라를 건설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더우기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은 오랜 세월 천대와 멸시, 억눌림에 시달려온것으로 하여 사상적으로 뒤떨어져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덮어놓고 다른 나라의 본을 따려고 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다. 천대와 고역속에 멎이 든 로동자들의 힘찬 손을 따르듯이 잡아주시며 이제는 동무들이 기둥이며 주춧돌이라고 하시

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그 좋은 래일을 안아오기 위해 모

두가 분발하고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공화국의 70년력사는 자력자강의 힘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면서 기적과 혁신을 안아온 승리의 력사이다.

솔의 장엄한 창조대전을 벌려나가고 있다.

일심단결의 바탕에는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끝까지 받들고 따르려는 인민의 열화같은 마음이 있다.

아버이수령님께 전쟁만 이기면 북조선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락원의 녀성,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야 살길 이 열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고 말씀하신 법동농민, 종파농민들이 어찌고저찌고 해도 우리의 수령님만을 지지한다고 인민의 신념을 대변한 태성할머니...

비단 이틀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남녀노소가 년대와 세기를 이어 자기 령도자를 충정으로 받들어왔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충정다해 받드는 일심단결,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도 가져본적이 없는 일심단결로 하여 공화국은 그처럼 강하며 더 좋은 래일을 안아오기 위해 모

두가 분발하고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공화국의 70년력사는 자력자강의 힘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면서 기적과 혁신을 안아온 승리의 력사이다.

해방은 되었어도 빈터나 다름없는 땅에 새 나라를 건설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더우기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은 오랜 세월 천대와 멸시, 억눌림에 시달려온것으로 하여 사상적으로 뒤떨어져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덮어놓고 다른 나라의 본을 따려고 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다. 천대와 고역속에 멎이 든 로동자들의 힘찬 손을 따르듯이 잡아주시며 이제는 동무들이 기둥이며 주춧돌이라고 하시

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그 좋은 래일을 안아오기 위해 모

두가 분발하고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공화국의 70년력사는 자력자강의 힘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면서 기적과 혁신을 안아온 승리의 력사이다.

해방은 되었어도 빈터나 다름없는 땅에 새 나라를 건설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더우기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은 오랜 세월 천대와 멸시, 억눌림에 시달려온것으로 하여 사상적으로 뒤떨어져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덮어놓고 다른 나라의 본을 따려고 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다. 천대와 고역속에 멎이 든 로동자들의 힘찬 손을 따르듯이 잡아주시며 이제는 동무들이 기둥이며 주춧돌이라고 하시

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그 좋은 래일을 안아오기 위해 모

두가 분발하고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공화국의 70년력사는 자력자강의 힘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면서 기적과 혁신을 안아온 승리의 력사이다.

해방은 되었어도 빈터나 다름없는 땅에 새 나라를 건설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더우기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은 오랜 세월 천대와 멸시, 억눌림에 시달려온것으로 하여 사상적으로 뒤떨어져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덮어놓고 다른 나라의 본을 따려고 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다. 천대와 고역속에 멎이 든 로동자들의 힘찬 손을 따르듯이 잡아주시며 이제는 동무들이 기둥이며 주춧돌이라고 하시

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그 좋은 래일을 안아오기 위해 모

두가 분발하고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공화국의 70년력사는 자력자강의 힘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면서 기적과 혁신을 안아온 승리의 력사이다.

우리 나라는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그대로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이민위원의 숭고한 리념이 현실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인민중중, 인민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이민위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혁명을 시작하시였으며 그 리념이 빛나게 구현된 사회주의나라를 세우시고 빛내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전 로정에서 언제나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여 사상을 내놓으시고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였다. 수령님들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였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시는 수령님들의 중요한 국사였고 행복한 생활이며 즐거운 휴식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제조방침,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해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도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내놓으신것이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도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였고 그들의 념원과 의지, 경험을 집대성하여 내놓으신것이다. 인민들속에 철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문학도 있다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에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공화국을 불패의 사회주의나라로 건설하신 그이의

솔의 장엄한 창조대전을 벌려나가고 있다.

일심단결의 바탕에는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끝까지 받들고 따르려는 인민의 열화같은 마음이 있다.

아버이수령님께 전쟁만 이기면 북조선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락원의 녀성,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야 살길 이 열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고 말씀하신 법동농민, 종파농민들이 어찌고저찌고 해도 우리의 수령님만을 지지한다고 인민의 신념을 대변한 태성할머니...

비단 이틀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남녀노소가 년대와 세기를 이어 자기 령도자를 충정으로 받들어왔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충정다해 받드는 일심단결,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도 가져본적이 없는 일심단결로 하여 공화국은 그처럼 강하며 더 좋은 래일을 안아오기 위해 모

두가 분발하고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공화국의 70년력사는 자력자강의 힘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면서 기적과 혁신을 안아온 승리의 력사이다.

해방은 되었어도 빈터나 다름없는 땅에 새 나라를 건설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더우기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은 오랜 세월 천대와 멸시, 억눌림에 시달려온것으로 하여 사상적으로 뒤떨어져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덮어놓고 다른 나라의 본을 따려고 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다. 천대와 고역속에 멎이 든 로동자들의 힘찬 손을 따르듯이 잡아주시며 이제는 동무들이 기둥이며 주춧돌이라고 하시

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그 좋은 래일을 안아오기 위해 모

두가 분발하고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공화국의 70년력사는 자력자강의 힘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면서 기적과 혁신을 안아온 승리의 력사이다.

해방은 되었어도 빈터나 다름없는 땅에 새 나라를 건설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더우기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은 오랜 세월 천대와 멸시, 억눌림에 시달려온것으로 하여 사상적으로 뒤떨어져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덮어놓고 다른 나라의 본을 따려고 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다. 천대와 고역속에 멎이 든 로동자들의 힘찬 손을 따르듯이 잡아주시며 이제는 동무들이 기둥이며 주춧돌이라고 하시

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그 좋은 래일을 안아오기 위해 모

두가 분발하고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공화국의 70년력사는 자력자강의 힘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면서 기적과 혁신을 안아온 승리의 력사이다.

해방은 되었어도 빈터나 다름없는 땅에 새 나라를 건설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더우기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은 오랜 세월 천대와 멸시, 억눌림에 시달려온것으로 하여 사상적으로 뒤떨어져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덮어놓고 다른 나라의 본을 따려고 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다. 천대와 고역속에 멎이 든 로동자들의 힘찬 손을 따르듯이 잡아주시며 이제는 동무들이 기둥이며 주춧돌이라고 하시

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그 좋은 래일을 안아오기 위해 모

두가 분발하고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공화국의 70년력사는 자력자강의 힘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면서 기적과 혁신을 안아온 승리의 력사이다.

## 온 나라에 휘몰아치는 애국의 열풍

지금 공화국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중앙동원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중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는 속에 년간계획을 기한전에 끝낸 단원들이 늘어나고있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부문에서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보급사업을 개선강화하고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생산에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추동하고있으며 교육부문에서는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심하고 인재육성을 개선강화하고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생산에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추동하고있으며 교육부문에서는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심하고 인재육성을 개선강화하고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생산에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추동하고있다. 또한 삼지연군을 사회주의 문명이 융집된 산간문화도시로 꾸리는 사업과 원산갈매안관광지구와 단천발전소건설이 빠르게 진척되고 나라의 모든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기 위한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공화국의 면모가 일심되어가고있다. 그이께서는 전체 인민이 열렬한 조국애를 간직하고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을 힘있게 다그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수호의 전초선들을 찾아가시며 인민군장병들에게 불굴의 조국수호의지를 버려주시였고 그들과 함께 식수도 하시며 조국애에 대한 참된 사랑을 심어주

시였다. 창천거리에 새로 일사한 교육자가정을 방문하시여서는 애국자가정이라 불러주시고 인민들속에서 발전되는 애국적소행을 귀중히 여기시며 자신의 감사를 주시고 널리 소개선전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체육인들을 참다운 애국가, 영웅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제경기에 진출한 여자축구선수들에게 뜨거운 믿음이 어린 축하전문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조국의 명예를 떨치고 돌아왔을 때에는 비행장에까지 나오시며 한사람한사람 사랑의 한숨에 안아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온 나라 인민의 애국심과 정신력을 총괄시켜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노래 《조국찬가》가 시대의 명곡으로 태어나 사람들이 애국의 길로 떠밀어주고있다. 언제나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한 나의 사상감정을 소박한 시구로 표현한다면 《흙이 되어 뿌리 덮어주리라》이다. ... 그것은 이 구절에 자기의 한몸을 깎고리 바쳐서라도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숭고한 사상감정이 깃들어있기때문이다. 설사 내가 숨이 저 짧은 생을 산다고 하여도 그 생이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는것이 나의 견해이다. ... 김정 애국의 비결로도 심신을 불태우시며 전체 인민을 애국의 한길로 이끄시는 그이의 다심하고 웅심있는 사랑이 있었기에 이 땅에는 애국자가정들이 늘어나고있다. 군인가정, 로동자가정, 농민가정, 과학자가정, 교육자가정, 예술인가정, 체육인가정, 산림가정, 탄부가정, ... 조국이라는 거목을 받드는 뿌리와 같은 이런 인민의 뜨거운 애국심에 받들려 그처럼 강하고 기세차게 전진하는 공화국이다. 천만이 애국심으로 뭉치면 그 힘을 당할 자 없고 그 애국의 열기가 총폭발하면 무서울 것도, 못해낼 일도 없다. 이제는 건설의 대변영기와 황금해의 새 력사, 최후의 사과파도를 펼쳐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기적과 번영을 안아왔고 그들은 세계적인 전략국가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며 경제건설대진군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걸고있다. 9월의 명월을 뜻깊게 경축하는 지금 전체 인민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투쟁해나갈 때 정경 못할 요새, 뿔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때부로 절감하고있다. 신성일

본사기자 리 설



# 인민의 모든 꿈이 꽃피는 우리 조국입니다

자나깨나 그리운 어머니조국이 창건 70돐을 맞고있다. 9월의 푸른 하늘가에 람홍색공화국기가 펄럭이고 조국의 일터와 가정마다에서 《조국관가》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있다.

희에 살고있는 재중조선공민들이 궁지높이 간직하고있는 우리 조국의 장장 70년의 력사도 성스럽고 세계가 보람듯이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존엄높은 그 모습도 자랑스럽다.

지금 조국땅에서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오랜 세월 바라던 모든 꿈과 리상이 꽃피는 눈부신 현실이 펼쳐져 세인을 경탄케 하고있다.

그렇수록 조국땅에 인민의 리상향, 희한한 별천지를 펼쳐가고계시는 절세위인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에 눈시울이 젖어들곤 한다.

## 재중 동포 리영철

목을 통채로 끌어당긴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을 커다란 걱정과 흥분속에 지켜보던 때를 잊을수 없다.

력사상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장구한 세월 침체에 고패를 덧씌워진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새로운 시대적호를 맞게 재정립하신 이 력사적사변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출중한 예지와 확고한 결단, 천재적인 외교술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인민들이 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세계정치정세를 주도해나가는 현시대의 가장 리상적인 국가지도자로 한결같이 칭송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라 고 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자주의 조선,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재의 힘으로 다져주신 조국을 세계가 경탄의 눈길로 바라보는 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여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투철한 위인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은 땅도 옛날 그대로이고 인구도 많지 않다. 그러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주와 존엄의 강국으로 일떠서고 세계적인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서 세상을 굽어보고있다.

세계가 우러러보는 절세위인을 대를 이어 모실 때 작은 나라도 강국이 되고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떨칠수 있는것을 우리 조국의 70년력사는 궁지높이 말해주고있다.

## 강국이 있어 인민의 꿈은 꽃피난다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인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영도아래 오늘 조국땅에서는 세상에 부럼없이 만복을 누려갈 인민의 꿈과 리상이 눈부신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인민의 꿈과 리상, 평범한 말이지만 여기에 없는 력사의 크나큰 울림이 있다.

어제보던 장구한 인류사는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력사라고도 할수 있다.

백성의 마음은 삼척동자와 같다고 인민의 꿈은 언제나 소박하였다.

신분차별과 착취가 없는 별천지인 료도국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우리 민족의 고전문학 《홍길동전》의 리상 사색에 대한 갈망이나 푸른 하늘은 하나 수 하얀 쪽배를 타고 구름나라, 서쪽나라를 찾아가는 《반월가》에 담긴 소망처럼 예로부터 우리 겨레는 모두다 평등하고 행복하게 잘사는 그런 나라를 꿈꾸어왔다.

조국방문의 날에 본 예술영화 《조선의 별》에서 강박석어머니께서 즐겨 부르시던 달노래를 차광수참모장에게 들려주시며 김일성장군님께서 하시던 이야기, 기껏해야 초가삼간 지어 놓고 마음편하게 살아보자는것인데 우리 조선사람들이 이만한 소원도 풀지 못하고 살아야 하겠는가고 하신 준절한 말씀이 심금을 울려준다.

인류의 꿈도 다름바 없었다.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 인권평화운동가인 한 목사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사는것이 꿈이라고 웨쳤다.

인류는 제 하늘 어딘가에 자기들이 그러는 리상향이 있지 않음가 꿈을 꾸며 하늘에 빌어보고 하느님의 《축복》속에 행운이 트이기를 바랐지만 그런 세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래서 평민의 꿈은 신기루와 같고 손에 질수 없

## 통일 조국의 미래는 밝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012년 4월 15일 아버지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력사적인 첫 연설을 하실 때 세인을 감동케 한것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실 확고한 결심을 엄숙히 선언하신 말씀이었다.

그이께서 하신 선언이야말로 정치강령이기 전에 사랑하는 인민들을 만복의 최절정에 올려세워주시려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열화같은 사랑의 맹약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노래 《조국관가》에 있는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라는 구절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이것이 우리 당의 뜻이라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겠다고 한다.

인민의 소원을 천만금을 들여서라도 풀어주는것, 인민이 바라다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어야 한다는것이 원수님의 드립같은 의지이다.

이제 우리 인민이 제일 잘사는 세상을 만드실것이다. 이제부터 우리의 투쟁구호는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자!》이라고 하시며 그리고 이것은 인민의 아름다운 꿈을 꽃피운 진귀한 보물들로 하늘과 땅, 바다를 가득 채울 때라는 결의언사를 지니시고 늘 현실지도의 길에 계신다.

그 날에는 몸소 건설주, 설계가, 시공주가 되시어, 려무물놀이장의 형성을 113건, 려명거리형성안만 해도 무려 천수백건이나 심혈을 다해 보내주시는 새 건설사들을 찾아다니고 싶은데 이비에 옷습이 젖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건설장을 찾으시어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완공시켜주시 일화도 있다.

그이께서 작은 목선으로 헤쳐가신 서해의 풍랑길과 더불어 천도개벽의 새 아침이 밝아왔고 상저임은 북방의 인민을 찾아 넘어고 넘어오신 그 길과 더불어 함께 하는 세계가 강과 바다, 산으로 퍼져서 찾아 이리저리 헤매며 붕비고 있을 때 오직 한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은 지구를 통채로 살아내는데같은 목욕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평안북도에서 량강도에도, 함경북도에서 강원도에도, 황해남도, 평안남도, 함경북도, 량강도를 찾아

고있다. 조국에서 인민의 꿈을 꽃피우기 위한 창조와 건설은 순환하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조선이 잘살게 되는것을 바라지 않는 적대세력들은 강도적인 제재봉쇄로 기술과 설비, 식품 지어 사람들의 쾌락까지 가로막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압박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그러나 조국땅에서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압박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천재일억을 일떠세우기 위한 전인민적인 창조대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다.

모든것이 어렵고 간고한 속에서도 삼천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비롯한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도처에 솟아나고있다.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드는 조국이 이제 경제강국의 령마루에 올라서는것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인민의 꿈이 백화로 만발하는 조국의 황홀경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뜻을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아오신 애국헌신의 결정체이다.

## 통일 조국의 미래는 밝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조국땅 동서남북 총휘무진하시며 초인간적인 강행군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었다.

그 날나 나는 조국의 지도를 펼쳐놓고 숨쉬기조차 힘겨운 무더위속에서 현지지도의 머나먼 길을 이어가시는 노레소리가 울려 퍼지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눈시울을 적시었다.

삼복의 폭양이 아무리 뜨겁다한들 인민들이 만복을 누리길 그날을 하루, 한시라도 앞당기길 일념으로 가슴끓이시는 그의 사랑의 열도에 어찌 비길수 있겠는가.

인민의 만복의 웃음 넘쳐나는 사회주의강국의 새 아침을 앞당겨주시어 자신을 초물처럼 강그리 태우시는 그의 희생적인 애국헌신의 날과 달속에 인민의 기쁨 꽃피어나고 어디서나 사회주의만복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데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토선을 천명하신 소식을 접하고 재중동포들 누구나 조국인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릴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영도에서 하여 인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그레의 꿈인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새로운 전성기도 열리고있다.

그 어떤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이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기어 올려세워주시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와 통이 큰 야망. 대법한 결단으로 올해의 첫 아침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내외가 한결같이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통 큰 조치》, 《새해에 민족에게 주는 커다란 선물》이라고 격찬해주시지 않은 북남관계개선 활동방향을 제시하시고 그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시 경애하는 원수님입니다.

이에 따라 폐쇄되었던 북남사이에서 진행된 제23차 겨울철유림평끼대회에 공화국의 대표단들을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회담들이 진행되었다.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과 삼지연

관련학단, 민족유림평끼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들이 남조선에 나가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따뜻한 봄기운을 안겨주었다.

분렬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운지를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시니 그분들의 상징이고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매우 의미깊은 상봉을 하였다고, 이러한 특별한 곳에서의 만남은 그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과 꿈을 다시 안겨주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하시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서명하시고 선언문을 교환하시었다.

이날의 력사적인 판문점상봉과 회담, 4.27선언으로 오래동안 멈춰있던 통일시대의 초침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고 계속 일어나고있는것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숭고한 사명으로 새겨안으시고 그 실현에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민족애와 탁월한 영도가 안아온 자랑찬 현실이다.

한없이 숭고한 인간애와 동료애, 세련된 정치철학으로 조국과 민족의 휘황한 앞날을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북과 남의 온 겨레가 대대손손 복락을 누리길 통일강국의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한다.

창조와 비약의 위대한 힘으로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드신고 승리에 더 큰 승리를 위해 무려갈 그날을 하루, 한시라도 앞당기길 일념으로 가슴끓이시는 그의 사랑의 열도에 어찌 비길수 있겠는가.

인민의 만복의 웃음 넘쳐나는 사회주의강국의 새 아침을 앞당겨주시어 자신을 초물처럼 강그리 태우시는 그의 희생적인 애국헌신의 날과 달속에 인민의 기쁨 꽃피어나고 어디서나 사회주의만복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데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토선을 천명하신 소식을 접하고 재중동포들 누구나 조국인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릴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영도에서 하여 인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그레의 꿈인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새로운 전성기도 열리고있다.

그 어떤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이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기어 올려세워주시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와 통이 큰 야망. 대법한 결단으로 올해의 첫 아침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내외가 한결같이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통 큰 조치》, 《새해에 민족에게 주는 커다란 선물》이라고 격찬해주시지 않은 북남관계개선 활동방향을 제시하시고 그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시 경애하는 원수님입니다.

이에 따라 폐쇄되었던 북남사이에서 진행된 제23차 겨울철유림평끼대회에 공화국의 대표단들을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회담들이 진행되었다.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과 삼지연



려명거리



# 내 나라 제일로 종아

## 《조국찬가》에 비낀 조선의 오늘

창건 70년을 뜻깊게 맞이하는 공화국의 하늘가에 노래 《조국찬가》의 선율이 울려 퍼진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결음마 떼어준  
정든 고향집트락 조국이여라  
...

들으면 들을수록 노래의 가사와 선율이 마음의 금실을 울려 저절로 따라부르게 되고 위대한 이 조선 길이 받들려는 애국의 열정이 북받치게 해주는 노래 《조국찬가》이다.  
이 노래가 창작되어 인민들 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일으키고 남녀노소가 가정에서, 출근길에서, 직장에서 빼없이 즐겨 부르기 시작한 때로부터 어느덧 5년 세월이 흘렀다.

조국이란 무엇이던가. 고향마을 정든 집이던가. 그리운 얼굴들이던가.  
인간에게 있어서 조국보다 더 귀중하고 신성한 것은 없다.

하기에 인류문화사의 갈피를 돌이켜보면 조국에 대한 예술작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명작들중에서도 조국주제의 작품들이 가장 아름다운 별무리로 빛을 뿌리고 있다.

조국에 대한 숭고한 감정이 그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진실한 생활 세부들로 누구나 알기 쉬운 시어들로 형성된 《조국찬가》의 가사는 돼서 거 불수록 조국에 대한 사랑과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

합없는 고마움을 최대로 승화시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고 깊은 여운을 안겨주고 있다.  
주제 102(2013)년 9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새로 나온 노래 《조국찬가》는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긍지감을 생동하고 구체적인 감정으로 반영한 훌륭한 노래라고 하시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라는 노래구절에는 바로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린, 인민의 리상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새길수록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린을 실현하여 공화국을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강국, 인민의 모든 꿈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으뜸가는 나라로 더욱 빛내여가시려는 절세위인의 애국의 의지가 넘쳐나는 말씀이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신 조국땅우에 《조국찬가》의 눈부신 화폭을 헌신의 자욱자욱으로 안아오시었다. 인민의 꿈과 희망이 어린 행복과 번영의 아름다운 설계를 펼치고 있다.

지금 공화국의 운명과 지위, 이 나라 인민들의 삶에서 일어

난 엄청난 변화를 보노라면 《조국찬가》의 구절구절이 더욱 새삼스레 안겨오고 탁월한 정도로 공화국을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 세워주신 절세의 애국자, 만고의 영웅에 대한 고마움의 격정에 누구나 가슴 울렁인다.

조국은 저절로 아름다워지지 않는다. 저절로 살기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가꾸어주는 손길이 없다면, 지켜주는 손길이 없다면 어찌 이 노래가 울릴수 있오랴.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결음마 떼어준 정든 고향집트락인 그 조국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찾아주시고 빛내 주신 품이고 경애하는 원수님

이끄시는 행복의 품이다.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취임하는 헌신의 로고와 애국의 땀방울에 의해 더욱 황홀해지고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공화국의 최후의 모습이다.

창천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송도원곡제소년단야영소, 류경치과병원, 유육아동병원, 새로 일떠선 전국의 육아원, 예육원, 양로원들, 현대화된 새 공장들, 먼 후날에도 손색없게 꾸려진 수많은 양어기지, 황금해의 새 려사 와 온 나라에 풍겨나는 사회주의 바다향기, 파수의 바다, 자력으로

로 만든 새형의 궤도전차, 무궤도전차, 지하전동차, 트락토르, 자동차들...

땅과 바다만 달라진것이 아니라 하늘도 달라졌다. 체합으로 만든 비행기가 날고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시위하며 조선의 위성이 지구를 날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헌신의 손길을 떠나 이 모든것을 어찌 생각할수 있오랴.

몸소 시공주가 되시고 설계가 되시여 형성안만 해도 백십여차례나 지도해주시며 띄약별 내려쬐이는 무더운 낮에도,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건설현장을 찾으셨었고 어느날 밤에는 물놀이장에 놓을 대형벽시계를 자신

의 차에까지 싣고가시며 인민들의 문화휴식터로 완공시켜주셨다. 쏟아지는 비에 온몸을 적시시며, 폭양에 옷살을 땀으로 적시시며, 세찬 눈보라길을 앞장서 헤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위해 찾아가신 그 값고많은 건설장동, 창조물들...

지금 다시 들어보면 《조국찬가》의 그 절절한 선율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을 초월처럼 강그리 불태우시는 위대한 애국자의 심장의 박동소리이다. 5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노래의 절은 인민의 꿈을 꽃피우시려고 사계절 쉬임없이 초강도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이 없는 인민사랑의 발걸음소리이다.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조선은 지금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고있다. 세월을 주름잡아 번개같이 내달리고 비약하며 솟구치고있다. 세계적인 전략구가의 지위에 올라 문명강국을 향해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조국의 그 젊음과 약동과 생기는 다름아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것이다. 세계를 놀라우는 비약의 나래도 그이께서 달아주신것이다.

출중한 령도력과 인민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회세의 위인을 모시어 오늘의 강대한 조선이 있다. 인민이 뜨거운 격정속에 다시금 불타는 《조국찬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에 대한 찬가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 70년이 말해주는 진리

### 위대한 어머니조국을 위해

### 애국의 길을 끝까지 이어가도록

공화국이 걸은 70년, 그 로정은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와 려사의 시련속에서도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걸은 궁지없는 려사이다.

흔히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에 대해 논할 때 지정학적우세나 천문학적인 군사력, 경제지표 등을 꼽곤 한다.  
그러나 그 모든것위에 인민이 놓여있다.  
지구의 무게는 그 위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무게를 합친것과도 같다는 말이 있듯이 세계를 뒤흔들고 려사를 전진시켜온 그 한복판에는 언제나 인민이 서 있었다.

20세기 40년대에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서 인민의 새 정권이 연이어 탄생하였다.  
그때 공화국과 함께 출현의 뜻을 올렸던 많은 정권들이 려사의 난파도속으로 사라졌다.  
70여년동안 붉은기를 휘날려온 세계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하루아침에 몰락은 단벽처럼 무너지고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사회주의가 좌절되는 비극적사태가 빚어졌다.

무엇때문이었는가.  
사회주의가 좌절된 어느 한 나라의 인사는 이렇게 썼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부터 시작된 70년을 뒤돌아보니 우리에게는 없고 조

선에만 있는것이 있다. 바로 사회주의이다. 우리의 조건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  
그것이였다.  
인민이 주어진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에 맞게 인민을 위한 옳은 정치를 펴지 못한다면 어느 나라에서나 인민을 표방하지 않는 정권은 없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시책을 편 나라가 있었던가.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조국을 변함없이 지지하며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해온 인민이 과연 있었는가.  
오직 우리 공화국밖에 없었다.

창건 첫날부터 철두철미 인민을 모든것의 첫차리에 놓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 온 우리 공화국이다.  
공화국은 이 길에서 한치의 팔정도, 순간의 담보도 물렸다.  
공화국은 인간에 대한 사랑에 뿌리를 둔 주체사상과 인류사가 일제히 알지 못하는 가장 인민적인 정책과 로선들로 평범한 인민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떠받들어올렸다.

언제나 인민에 의거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해온 공화국에 있어서 인민은 가장 신성하고 귀중한 존재였다.  
인민이라는 신성한 그 부름을 국호에도, 군대의 이름에도 달았고 수수천년 내려오던

세금제도의 철폐와 누구나 돈 한푼 안 들고 마음껏 배우고 치료받으며 꿈같은 행복을 누려가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새 세상을 수립한것도 인민을 위해서였다.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나라, 유구한 세월 인민이 목마르게 바라던 모든 꿈과 리상을 눈부시게 펼쳐주는 고마운 품을 누구나 인민 심장으로 받들지 않겠는가.  
하기에 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는 어머니조국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공화국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이 나라 인민들이다.

조국앞에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들 때마다 조국수호의 입대만민서부터 찾고 적대세력들의 비렬한 제재가 가해질 때마다 더욱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주체의 쇄멸을 뚫고 자력으로 우리의 비행기와 지하전동차를 만들어 내며 조국을 억척같이 받들어난 인민이다.  
이런 훌륭한 인민이 있어 지난 70년간 공화국에서는 그 어떤 사소한 정치적 불안정이나 동요도 있어본적이 없었다.

성스러운 자기 려사에서 70년대의 년륜을 새기는 뜻깊은 이 시각은 나라 인민이 가슴마다에 더 깊이 새겨안겨 되는것은 인민을 위해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하여 전진하는 위대한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은 영원히 승리만을 펼쳐가게 될것이라는 불변의 진리이고 확신이다.  
적대세력들은 우리 제도와 인민을 붕괴의 나락에 밀어 넣으려고 갖은 제재와 압박에 매달리고있다.  
그러나 인민의 참다운 삶과 행복의 요람인 사회주의 조국이 있고 어머니조국과 운명의 피줄로 이어진 위대한 인민이 있어 70년이 아니라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공화국은 끄떡없고 더욱 융성번영하게 될것이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이 조선의 하늘가에 람홍색공화국기는 무궁토록 휘날리게 될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려사학부 교원 박사 김재석

9월의 맑고 푸른 내 조국의 하늘가에 람홍색공화국기가 펨다.  
언제 보아도 뜨거운 애국의 마음과 열정을 북돋아주고 공화국국민이 된 궁지와 자부심을 가슴속깊이 심어주는 사랑하는 기발이다.  
세상에 국기는 많고 국가마다 형형색색이지만 나는 내 조국의 국기, 람홍색공화국기발이 제일 좋다.  
나는 어려서부터 람홍색공화국기를 바라보며 자랐다.  
국가적인 기념일, 명절이면 의례히 일터와 창가마다에 펨다던 그 기발, 어릴 적 그 기발을 학습장에 그려가는 작은 가슴에도 그 속

공화국창건 70년을 맞으며 조국을 방문하여 몰라보게 변모된 모습을 바라보니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해외공민들 궁지로 가슴이 부풀어오른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같은 획기적인 사변이 연이어 펼쳐진 시기에 공화국창건

70년을 뜻깊게 맞이하게 되어 더없이 기쁘다.  
나라없던 그 시절 낯설은 일본땅에 끌려와 천대와 멸시속에 시달리던 우리 부모들이 오늘 당당한 전략구가로 세계에 빛나는 공화국의 모습을 보려면 얼마나 가슴 부드뭇해졌는가.  
정말이지 이렇게 위대한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애국의 맘을 바칠 마음속결의를 가다듬게 된다.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압박속에서도 자기가 선택한 정의 길로 굳세게 나아가는 조국의 기상과 숨결을 가슴에 안고 앞으로도 총련의 애국활동과 조국의 통성변명을 위한 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겠다.  
재일동포 리종일

다. 천만자식모두를 귀중히 여기며 줄수 있는 사랑과 정을 다 돌려주는 고마운 어머니조국의 포근한 손길이 어려와서이다.  
공화국기를 가슴에 안으면 무서운것도 없고 산악도 단

다. 천만자식모두를 귀중히 여기며 줄수 있는 사랑과 정을 다 돌려주는 고마운 어머니조국의 포근한 손길이 어려와서이다.  
공화국기를 가슴에 안으면 무서운것도 없고 산악도 단

다. 천만자식모두를 귀중히 여기며 줄수 있는 사랑과 정을 다 돌려주는 고마운 어머니조국의 포근한 손길이 어려와서이다.  
공화국기를 가슴에 안으면 무서운것도 없고 산악도 단

다. 천만자식모두를 귀중히 여기며 줄수 있는 사랑과 정을 다 돌려주는 고마운 어머니조국의 포근한 손길이 어려와서이다.  
공화국기를 가슴에 안으면 무서운것도 없고 산악도 단

기제들을 보면서 자기의 힘으로 행복을 창조해나가는 조국인민들의 장신력과 의지를 느낄수 있었다.  
나 역시 자식을 가진 어머니로서 이렇게 훌륭한 교육환경속에서 자식을 공부시키고 싶을 정도로 모든 교육시설들이 훌륭하다.  
자라나는 세세대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교육제도가 있어 이런 훌륭한 대학이 일떠설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 돌아가면 조국의 고마운 사회주의교육제도에 대하여 동료사회에 널리 알리려고 후대들이 애국의 한길을 끝까지 이어가도록 하겠다.  
재일동포 김아기

위로 위상을 과시하며 려사적인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장에 나뭇기던 람홍색공화국기발을...  
오늘에 와서 공화국기는 자라나 인정하는 세계적인 전략구가의 위엄있는 국기로 되었다.  
나라가 강대해지니 국기도 더욱 찬연하게 빛을 뿌리고 있다.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기고》라는 노래구절이 떠오른다. 노래에도 뜻이 공화국기는 무궁토록 휘날릴것이다. 그 기발 날리는 속에 공화국은 최후승리의 축포를 보란듯이 쉼없이 울려 퍼질것이다.  
강영성

니다. 무변광대한 우주에도 우리의 공화국기발이 새겨진 인공지구위성이 날아오르고 행성의 곳곳마다에서 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시위하며 공화국기발이 휘날리고있다.  
세상사람들은 보았다. 우리 공화국의 당당한 지

단상  
자랑 많은 공화국기발  
숨에 떠올릴 힘과 용기가 치솟는다. 그것이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기에.  
창건된 첫날부터 인민의 하늘가에 휘날리던 람홍색공화국기는 내대와 세기를 이어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당해낼수 없는 일심단결의 위력



통일선보 107주년 기념 창간 70주년 기념 특별기사

공화국이 걸어온 70년은 온 겨레가 열망하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제로 내세우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한걸음 따라 함께 걸어온 성스러운 70년이다. 공화국은 시종일관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고 나라의 통일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민족자신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공화국정부는 북남총선거에 의한 통일적중앙정부 수립제안, 폭넓은 협상제안과 북남고위급직접군사회담제안, 북남적십자회담제안,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소집제안, 단계적인 군축제안, 경제 및 체육회담제안, 학생회담제안 등 수많은 통일방안과 북남회담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1970년대초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폭넓은 북남협상방향을 내놓으시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제시하시어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방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마련해주셨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융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된 고려민주평화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으셨다.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내의분열주의자들의 광란적인 반공화국고립압살소탕에 맞서야만 조국과 민족앞에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1990년대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심으로 민족주체적력량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었다. 이는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공화국은 지난 70년간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워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고 더욱 강화하여왔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사상과 제도, 계급과 계층에 관계없이 민족의 넋을 귀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포섭하고 단합시키는것은 공화국의 확고한 립장이며 일관한 정책이다. 비록 과거에는 민족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지난날의 과오를 배우고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려는 사람들은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민족의 모든 계급, 계층을 나라와 민족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굳게 묶어세우는 가장 폭넓은 애국애족의 정치가 바로 공화국의 광복정치이다.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화국의 광복정치에 의하여 김구, 김규식, 조소앙, 최철진, 최홍희 등 사상과 정견이 다른 수많은 각계층 인사들과 동포들이 민족단합과 통일애국의 길에 나섰다. 애국력량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겨주기 위해 공화국정부가 기울여온 꾸준하고 성의있는 노력으로 지난 시기 범민족대회와 민족통일대추전, 북과 남의 계층별 통일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어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이 비상히 강화되고 조국통일운동은 거족적인 범위에서 힘있게 전개되어왔다. 괴뢰 나반 동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는 공화국은 지니 기간 남반동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동포애로 물질방면의 아낌없는 지원을 주었다. 특히 1984년 8월말~9월초에 내린 폭우로 남조선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인명피해와 이재민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호물자를 보내줌으로써 민족적단합과 혈육의 정을 두터이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애국애족의 대담단으로 두서레의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겨레에게 안겨주시어 조국통일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온 겨레가 평화통일과 행복을 누릴 존엄성을 통일문을 열어가는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었다. 만나자 정이 통하고 각계층의 겨레

를 하나로 묶어준다는 뜻을 천명하시었다. 이 도보다리는 1953년 정전협정직후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임무수행을 위해 좁은 거리를 이동할

가 열싸우고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합성을 높이 더치던 6.15시대와 격동적인 화풍들은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자주통일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남김없는 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애국위업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투철한 통일애국의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갔것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데 대하여 엄숙히 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실 확고한 의지를 안시고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4.27선언의 발표로 이 땅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한 조국통일의 새로운 이정표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은 온 민족의 통일지와 열망을 반영한 자주통일선언,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천적장담을 밝힌 평화통일선언,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대책들을 명시한 민족대단결선언이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듯이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발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것이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이 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자주통일강령인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자족적인 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다스림으로써 온 겨레가 평화통일과 행복을 누릴 존엄성을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

전 절 호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던가. 민족문제를 그 주인인 북과 남이 손잡고 함께 풀어나가려는 립장과 의지였을것이다. 우리 민족과 온 세계는 그 력사의 광경을 보며 누구나 충격과 감동을 금치 못하였었다. 판문점 《평화의 집》 주변에 있는 오솔길로 함께 산책을 하시던 북남수뇌분께서는 도보다리 우에 있는 나무의 자에 누웠었다. 우리 민족과 온 세계는 그 력사의 광경을 보며 누구나 충격과 감동을 금치 못하였었다. 판문점선언이야말로 온 민족의 의사와 념원,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지향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오늘날 판문점선언은 현실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립증되고 있다.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 래왕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평양과



지난 8월 26일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린 인도네시아의 하롱가에 아리랑의 선물이 장중하게 울리는 속에 통일이기 서서히 울렸다. 커누경기에 출전한 북남단일팀이 여자 500m종목에서 영예의 1등을 하고 금메달을 수여받은것이다. 이보다 하루전에 열린 커누 여자 200m경기과 27일에 진행된 커누 남자 1000m경기에서 북남단일팀은 동메달을 쟁취하였으며 9월 1일에는 여자농구경기에 출전한 북남단일팀이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한 북남단일팀이 런던 패거리를 이룩하였다. 이를 두고 남조선의 언론들은 《불과 한달 남짓 호흡한 남북선수들이 땀으로 이뤄낸 결정체라는 점에서 코레아의 메달은 각별하다. 비록 남도 북도 아닌 제3국의 메달로 집계되나 (한) 반도분단의 역사를 잘 아는 세계는 오롯이 남북이 합쳐서 만든 메달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 《파란색 (한) 반도기가 계양되고 아리랑이 국기로 연주되는 력사의 한페이지가 완성됐다.》, 《남북이 손을 잡고 이어간 (평화의 령)이 여자농구 은메달로 결실을 맺었다.》고 대서특필하였다.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한 북남단일팀이 거둔 성과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보여주는 산 증거이다.

민족의 힘을 합쳐 세계로

판문점선언에는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북과 남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의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통일이 가계되는 눈부신 성과가 련속 이루어지고있는것은 우리 겨레를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지난 7월에도 남조선에서 진행된 2018년 국제탁구련맹 세계선수권대회에 코레아공개탁구경기대회 혼성복식에 참가한 북남단일팀이 우승하여 온 겨레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체육분야에서 이루어지고있는 북남사이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 민족은 북과 남이 동화출을 이은 하나의 민족임을 더욱 절감하면서 서로의 가슴에 남아있던 불신의 감정을 가셔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로 뭉쳐가고있다. 북남단일팀이 출전한 아시아경기대회 여자농구경기장에서 북과 남의 응원단이 마음을 합치고 서로의 응원도구를 바꿔가면서 한목소리로 경기를 응원한 사실을 놓고 남조선의 한 언론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여자농구단일팀경기를 함께 응원한 남과 북의 교민들은 경기마

다 (작은 통일)을 경험하고있다. 이 (작은 통일)을 남과 북의 더 많은 사람이 느껴야 한다. (우리는 하나)라는게 무엇을 안겨주었다. 체육분야에서 이루어지고있는 북남사이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 민족은 북과 남이 동화출을 이은 하나의 민족임을 더욱 절감하면서 서로의 가슴에 남아있던 불신의 감정을 가셔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로 뭉쳐가고있다. 북과 남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리행하여 체육분야에서 서로의 가슴에 남아있던 불신의 감정을 가셔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로 뭉쳐가고있다. 북과 남의 응원단이 마음을 합치고 서로의 응원도구를 바꿔가면서 한목소리로 경기를 응원한 사실을 놓고 남조선의 한 언론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여자농구단일팀경기를 함께 응원한 남과 북의 교민들은 경기마

본사기자 김철민



민족의 힘과 기개를 과시하는 북남단일팀선수들

남조선의 광주시가 북구 호수생태원에 북남수뇌분들이 함께 걸으셨던 판문점 도보다리와 똑같은 시설물을 만들기로 하였다. 앞으로 이곳에 판문점 도보다리와 같은 시설물이 건설되면 새로운 명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것이라고 한다.

남조선인민들의 가슴마다에 판문점수뇌상봉과 4.27선언이 얼마나 크나큰 충격과 환희로 끓어오르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하나의 사실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의 평화풍중의 하나는 북남수뇌분들이 판문점도

보다리를 함께 거니시는 장면이다. 이 도보다리는 1953년 정전협정직후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임무수행을 위해 좁은 거리를 이동할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던가. 민족문제를 그 주인인 북과 남이 손잡고 함께 풀어나가려는 립장과 의지였을것이다. 우리 민족과 온 세계는 그 력사의 광경을 보며 누구나 충격과 감동을 금치 못하였었다. 판문점선언이야말로 온 민족의 의사와 념원,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지향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오늘날 판문점선언은 현실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립증되고 있다.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 래왕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평양과

인 4.27선언의 탄생도 선언하였었다. 북남이 뜻과 힘을 합쳐 판문점의 봄을 만들고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마찬가지로 4.27선언을 끝까지 리행하여 평화와 통일의 길을 앞당겨오는데서도 민족자주는 생명처럼 귀중하다. 지금 판문점선언리행의 길에는 모진 위풍이 불고있다. 앞으로도 불꽃이다. 그때마다 누구나 민족운명개척의 높은 사명감을 안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자라는 판문점선언의 구절을 머리에 떠올리자. 한일 력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는 노래

《 통일 념원 가 》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수행을 힘있게 추동하는 노래가운데는 지난 1991년에 창작된 가요 《통일념원가》(유성옥 작사, 한희세 작곡)도 있다.

말도 하나 글도 하나 민족의 얼도 하나 에로부러 동포형제 하나되어 살아온 땅 백두에서 한나까진 내 조국 삼천리 우리 어이 갈라진채 아픈 세월 더 살랴

를 가로질러 험하게 뻗어간 분렬의 장벽에 서린 겨레의 원한을 하루빨리 가시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함께 손을 잡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애국애족의 진리가 담겨져있다. 통일은 불리서, 웨쳐서 오는것이 아니다. 북과 남이 손을 잡고 힘을 합쳐 나갈 때 통일의 날은 더욱 앞당겨져온다. 북남관계개선의 성과가 이뤄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이를 잘 말해주는다.

하나되면 우리 나라 세상에서 제일강산 해와 별이 밝게 빛나는 락원 속에 살아가리 백두에서 한나까진 내 조국 삼천리 통일원 이루어서 우리 겨레 함께 살자

노래의 1절에서는 말과 글, 민족의 얼도 하나인 우리 민족이 언저까지 갈라진채 아픈 세월을 더 보내겠는가 하는 겨레의 가슴에 울려오는데 대한 절절한 정경 감동없이 들을수 없는 노래의 구절구절이다. 백두에서 한나로 이어지는 이 땅우에서 우리 겨레는 오랜 세월 찬란한 문화와 력사를 창조해왔다. 하나의 피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로 한강도우에서 반만년의 오랜 세월을 살아온 우리 민족이 오늘날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렬의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노래의 2절에서는 내 조국강토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만 놓고보아도 북과 남은 민족의 단합된 모습을 과시하여 세상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놀라게 하였다. 하기에 재미동포전국련합회는 홈페이지에 《평창올림픽은 통일올림픽이었다》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평창올림픽은 우리 겨레에게 참으로 많은것을 보여주었고 많은것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특히 통일조국의 달콤함을 미리 맛보게 해준 통일올림픽이었다. 단일팀선수들은 화기애애하게 공동훈련을 펼쳐 외국인감독조차 감동하게 하였다. 겨레는 남북의 가슴이 하나가 되었고 통일이구나. 남북과,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이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낼일이 없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우리 겨레의 통일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나가야 할것이다.

백두산과 한나산이 손을 맞잡으면 삼천리가 하나가 되듯이 북남의 겨레가 손을 잡고 힘을 합치면 그토록 바라던 통일이 온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이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낼일이 없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우리 겨레의 통일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4.27선언은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자주통일강령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밝은 앞길을 열어 나갈 열의에 충만되어 신심대높이 나아가고있다. 판문점선언은 민족의 혈맥을 잇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가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 자주통일대강이다. 판문점선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자주통일강령으로서 우리 민족끼리의 념원, 자주 원칙을 핵으로 하고있다.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북과 남은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이룩할수 있다는

것은 이미 6.15통일시대에 현실을 통하여 확증되었다. 판문점선언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이정표이다. 판문점선언에는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때 대한 문제,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데 대한 문제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있다. 판문점선언이야말로 온 민족의 의사와 념원,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지향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오늘날 판문점선언은 현실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립증되고 있다.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 래왕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통일몽구경기와 동아시아축구대회가 진행되며 8.15를 계기로 분렬의 고통 속에 수천년세월 헤어져있던 가족, 친척들이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북과 남이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힘을 전세계에 펼쳐냈다. 판문점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현실로 목격하면서 남조선 각계층은 판문점선언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법》으로 삼았다. 남북관계개선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다. 《정부》가 주변환경때문에 선언행을 주저하면 자신들이 앞장서 나서겠다고 하면서 대조선적시정세의 변화와 종전선언채택,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해나가고있다.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길에는 의연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남조선의 《자유한국당》과

리 어 굽



시문학

# 백 발의 아들들이 부르는 노래

## — 공화국 창건 70돐을 맞으며 —

### 내 한생이 기발아래

비전향장기수 함세환

경사로운 9월의 이 아침  
나는 창가에 공화국기발을 띄운다  
기운차게 퍼덕이는 기폭소리  
류다른 인생길 걸어온 내 가슴에  
못 잊을 추억 속삭여주누나

나의 한생 없었더라면  
내 배쳐진 후회와 고뇌의 눈물 흘렸  
으리  
기발아래, 내 운명의 기발아래  
너의 기폭과 함께 한 나의 한생은  
후회란 없는 행복과 영광의 한생

공화국창건을 지지찬동하는 남녘의  
민심  
그 진정이 담긴 련관장을 풀고  
70년전 북으로 향한 열일곱살 소년  
람홍색기폭에 안긴  
나의 참된 삶은 이렇게 시작되었어라

시작이 좋다해도 마무리에 그늘지면  
그 인생 어이 아름다우랴  
이 기발 지켜 조국이여 그대의 아들  
참되게 살아 여생을 빛내이리

힘겨운 태백산줄기 주름잡아 달려  
늘 가슴에 품고있던 공화국기  
죽음보다 더 가혹한 34년 옥살이  
몸은 찢겨 화석처럼 변했어도  
마음속엔 더 거세차게 휘날리던 이  
기발

오,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여  
공화국기발아래 70년을 살았고  
이제 다시 70년을 더 산대도  
숨줄처럼 틀어쥐고 영원히 이 기폭  
아래

만일 너 아닌 다른 기폭에

그대 위해 내 심장 새차게 고통치  
리라  
무궁세월 휘날리라 람홍색공화국기발  
아래!

### 그이의 모습에서 봄나다

비전향장기수 홍명기

동해명승 송도원휴양의 나날  
눈물속에 비웠습니다  
저는듯 한 삼복철 폭열속에서도  
현지지도길 걸으시는 원수님

눈 내려도 비 내려도 인민들 찾으시던  
아버이수령님 모습입니다  
세월은 되돌아올수 없다 했지만  
수령님세월에 사는듯싶습니다

어쩌면 그리도 꼭 같으십니까

열정의 모습, 자애로운 그이 모습은

농업협동화의 그 나날  
내 재정벌에서 비운 수령님이십니다  
환하게 웃으시는 존안  
활달하신 그 걸음새까지도

인생에 이런 복도 있습니까  
한번만 뵈워도 온 넋이 끌리어  
운명도 미래도 다 말기엔  
수령님 같으신 우리 원수님  
내 생애 모시였으니  
몸은 늙어 백발이여도  
청춘시절에 사는듯싶습니다

그이 자욱자욱에서 꽃피는  
인민의 웃음, 인민의 행복  
우후죽순처럼 이 땅에 솟아남니다  
미래과학자거리, 러명거리...

### 행복의 만풍가

비전향장기수 리재룡

노래가 없어야 무슨 명절이라  
뜻깊은 공화국창건일의 이 저녁  
저저마다 날더러 먼저 부르라네  
아무렴, 내 부르겠소 《바다 만풍가》를

강원도 양양의 바다물을 먹으며  
잔비가 끊어진 나는 소년어부  
지고 다니는건 칠성판이요  
먹는것은 사자밥이라  
그 시절의 노래는 그리도 구슬프더니

홍겨운 민요가락 출이 절로 나오는  
《바다 만풍가》엔 람안이 출렁이오  
바다를 좋아해 류달리 좋아하는 노래  
나의 딸 축복이와 늘 함께 부르는

마식령엔 스키장, 명사십리엔 해양  
공원...

그 감격 어이 다 노래하리라  
그이의 지략, 그이의 령도따라  
세상이 다 알수 없는 자강의 힘으로  
날로 부강해지는 내 나라  
그 조국의 아들이라는 긍지  
이 가슴에 한없이 맥동칩니다

아, 수령님들과 꼭 같으신 인민의  
아버이  
겨레가 흠모하고 세인이 칭송하는  
우리의 김정은원수님!  
그이 모습에서 나는 봄나다  
자랑찬 70년의 력사우에  
찬란히 펼쳐질 내 조국의 밝은 앞날을

이 노래는 우리 집 애창곡이라고

포구엔 만신의 배고동소리  
선창엔 물고기 가득...  
이제라도 내 바다로 나가고싶소  
만신기 날리는 배우에 올라  
이 손으로 물고기산 쌓고싶구려

어이 바다에만 만풍이겠소  
산에 가면 황금산 열매도 만풍  
뜰에 가면 황금벌 이삭도 만풍  
일떠선 새 거러엔 웃음도 가득...  
노래에 담으려니 걱정이 북받치오

순탄한 나날에 이루어진 재부가

아니어서  
우리 질식시키려는 악랄한 제재봉쇄  
어렵고 고강한 시련을 박차며  
피땀으로 창조한 재부여서  
이리도 더더욱 목이 메이는것 아니  
겠소

내게도 귀여운 자식 있어왔으면...

### 조국이여, 약동하라! 젊어지라!

비전향장기수 최하종

주책머리 없다 마십시오  
아흔을 넘긴 이 늙은이가  
젊음을 말한다고  
청춘의 싱싱한 가슴들이 붉는  
그런 푸르름을 이 늙은이가 말한다고

나이를 잊게 하는 벽관 세월을 살아  
활력으로 늙는 이 가슴  
어찌 젊음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  
세월이 흐를수록 젊어지는데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전설의 별천지 늘어만 갑니다  
바다우에 솟은 해상다리  
석전만의 기적 동해에 펼쳐지더니  
서해포구에 보물고개 솟아나  
그림처럼 희한한 금산포지구입니다

산물고기 옥실대는 평양대동강수산물  
식당  
날마다 한복만 어장에 들어선듯  
삼복의 무더위 시원하게 가져주고  
기운차게 달리는 새형의 무궤도,

《총각할아버지》로 서러울던 나에게  
새 가정 이루어 복동이 안게 해준  
은혜  
내 딸 축복이와 노래하리요  
사랑의 바다 행복의 바다를 노래  
부르겠소  
더 풍성할 내 조국의 만풍을 노래하  
겠소

케도전차는  
거리를 꽃으로 단장한듯싶습니다  
날마다 펼쳐지는 새라새로운 풍경  
약동하는 조국의 숨결을 한껏 호흡  
하며  
인생교묘이 청엽으로 되었습니다  
운물엔 기운이 치솟고  
백발은 질어도 로망익장합니다

세월이 주는 나이로 인생 산다했  
지만  
활기에 넘친 조국에 안겨살아  
나날이 젊음이 넘쳐남니다  
로쇠를 모르는 이 가슴엔  
쇠물처럼 꿩은 피가 흐릅니다

아, 젊음이 넘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처럼 나라도 인민도  
청춘의 나라 청춘의 인민  
나의 조국 위대한 김정은조선이여  
끝없는 힘과 열정, 기백으로  
길이 약동하라, 젊음이 넘쳐있  
으라

## — 신화적인 기적의 창조자들 —

공화국에서는 류례없이 간고한  
조건에서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저항한 창조물들이 일떠서고있다.  
물과 몇달전까지만 하여도 파도  
소리만이 들리던 해안가에 현대  
문명이 웅축된 웅근 하나의 판방  
지구가 웅장한 면모를 드러내고  
백두산아래 첫동네라 불리우는 삼  
지연군에 대한 건설이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관심속에 힘있게 벌여  
지고있다.  
나라의 전력문제해결에서 큰 몫  
을 차지하게 될 단천발전소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는 가운데  
전국도처의 건설장들에서 날에 날  
마다 천지개벽의 불바람이 일어나  
고있다. 그런데 하면 국가경제발  
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중

산돌격운동이 새차게 벌어지는 속  
에 금속, 석탄, 철도운수, 화학  
공업을 비롯한 수많은 부문들에서  
혁신적인 성과들이 연일 기록되고  
있다.  
지금 공화국의 앞길을 가로막으  
려는 적대세력들의 말악적인 책동  
은 최절정을 이루고있다.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에 한층의 강  
철이나 원유도 들어가지 못하게 이  
중삼중의 경제봉쇄를 가하고있다.  
지어는 쌀이나 의약품과 같은 인  
도주의적물자들의 수입마저 가로  
막고있다.  
바로 이러한 속에서도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삼지연군건설과 원  
전건설에 안관관망지구건설, 단천발  
전소건설을 다그치고 증산돌격운

동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고있는  
것은 실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수  
없다.  
한다면 이러한 기적의 밑바탕에  
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라는대  
로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고  
반드시 잘살게 됩니다. 이것은 지  
나온 생활체험을 통해 우리가 신념  
으로 체득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  
설에 펼쳐나선 건설자들의 심정만  
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그이의 가르치심대로만 하  
면 이 세상에 절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다는것이 이  
나라의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신

념이고 의지이다.  
이런 신념과 의지로 만장악된 군  
대와 인민의 비동된 열의가 오늘처  
럼 가장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도  
신화적인 기적의 력사를 써나가고  
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  
의 양양된 기세의 일대 파시인  
동시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  
된 공화국의 위력이기도 하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  
음을 지니고 령도자와 뜻과 발걸음  
을 함께 하는 군대와 인민이 있는  
한 공화국은 최악의 어려움을 이겨  
내고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 서예축전장에서 만난 소녀

언제인가 나는 공  
화국을 방문한 기회  
에 동료들과 함께  
전국서예축전장을  
찾는 기회를 가지었  
다. 서예에 각별한  
취미를 가지고있던  
나는 남다른 호기  
심을 안고 축전장에  
발을 들여놓았다.  
하나하나의 작품  
들에 어린 길은 뜻  
과 그것을 능란한  
서체로 형성해낸 서  
예가들의 재능을 음  
미하며 발걸음을 위  
이 매지 못했다.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사에서 서예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다. 고려의 광  
개도왕릉비와 신라  
의 진흥왕순수비와  
같은 비문들을 비  
롯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귀중한 서예  
유산들도 많고 고려  
의 란연, 조선봉건  
왕조의 리용, 한호,  
김정희 등 력사에  
이름을 남긴 명필가  
들도 많다.  
예로부터 서예는  
서예가의 마음을 그  
린 그림이라고 하  
여왔다. 서예의 고  
유한 특성은 하나  
의 글자, 한개의 단  
어, 짙막한 문장을  
가지고 큰뜻, 심오  
한 사상을 피력하며  
그 뜻과 사상이 글  
자와 함께 정서적으로 안겨오  
는데 있다.  
전시된 서예작품들의 세계  
에 침투되어있는 나에게 안  
내원은 이번 서예축전에 서  
예전문가와 애호가는 물론 대  
학, 초급, 고급중학교, 소학  
교 학생들, 지어 유치원과 탁  
아소어린이들까지 참가하였다  
고 하면서 어린이들의 작품에  
대한 평가가 대단하다고 말해  
주었다.  
이런 큰 서예축전에 아이들  
까지 참가하였다는것도 놀라  
웠지만 더우기 그들의 수준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  
지 않을수 없었다.  
이날 나는 축전에서 우수  
한 평가를 받은 꼬마서예가들  
을 만났다. 그들중에는 놀랍게  
도 평양중등학교(조국에서 중  
등학교는 초급 및 고급중학교  
에 갈 나이의 부모없는 학생들  
을 맡아 키우면서 그들에게 중  
등일반교육을 주는 보통교육  
기관을 이르는 말이다.) 학생  
조혜연도 있었다.  
서예 《품》은 해연이가 쓴  
붓글이었다.  
해연, 아름다운 바다새를  
떠올리는 이름처럼 해연이의  
얼굴은 맑고 몸가짐은 단아  
했다.  
나는 해연의 작품을 놓고 어  
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소녀가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그리  
워하며 쓴 붓글이라고 생각했  
다. 설움설움해도 교양의 설움  
보다 더 큰 설움은 없다는 말  
이 있었어 부모의 따뜻한 사  
랑의 품을 얼마나 그리워했으  
면 작품의 주제를 《품》으로  
정했을까 하는 동정심을 금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음순간 들려오는  
소녀의 또랑또랑한 목소리는  
나에게 예상치 못했던 충격을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서는 우리 원아들도 나라의 기  
등감, 자신의 아들딸들이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모든 사랑  
을 다 안겨주려고합니다. 나는  
한없이 따사로운 아버지사랑의  
그 품을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  
하고싶었습니다.》  
소녀의 어조나 행동에서는  
당돌함과 단정함이 함께 묻어  
있었다.  
지도교원의 말에 의하면 해  
연이의 재능을 발견한것은 다  
섯살때였다고 한다.  
해연이는 그림그리기에 남다  
른 취미를 보였는데 자기가 본  
것들중에 인상에 남는것을 그  
림종이에 옮겨놓곤 했다. 그것  
이 어찌나 신통한지 보는 사람  
마다 탄복할 정도였다.  
후에는 붓을 쥐고 글씨쓰기  
도 무척 좋아하였다. 담당교양  
원은 그때부터 해연이에게 붓  
치는 법으로부터 시작하여 서  
예의 묘리를 하나하나 터득시  
켜주었다고 한다.  
해연이의 재능의 싹은 초등  
학원에 이어 중등학교에 이르  
기까지 지도교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날을 따라 몰라보게 자  
라게 되었다.  
나의 생각은 깊어졌다. 지구  
상 그 어디서나 교양이라고 하면  
불행과 서러움의 대명사로 공  
인되어있다.  
하지만 여기 조국땅에서는  
어떻게 되어 해연이와 같은 부  
모없는 아이들이 설움이란 말  
도 모르고 저렇듯 행복에 대  
해 주눅없이 말할수 있을가.  
불쑥 눈앞에는 평양육아원  
과 교육원을 찾았던 때가 떠

올랐다.  
그날 평양육아원 원장은 《우  
리 나라에서는 부모없는 아이  
들이 명당자리에 일떠선 황홀  
한 궁전에 보금자리를 꾸고 행  
복을 노래하고있습니다. 평양  
육아원, 교육원은 온 나라의  
아이들과 부모들모두가 부러  
워하지 않는 행복의 요람, 아  
이들의 궁전입니다.》라고 하  
면서 원아들을 위해 바치지는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정말 평양육아원과 교육원은  
안락으로 최고의 최고였다.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교양,  
성장발육, 지능개발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손색없이 꾸  
려진 보육실들과 잠방, 놀이  
장과 물놀이장, 해빛조끼기를  
하며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  
실수 있게 아담하게 조성해놓  
은 트랙, 치료병동, 연령실리  
적특성에 맞게 제작된 책상  
과 침대들, 보기 좋고 쓰기 편  
리한 집기류들, 동시에 맞게  
생활실들과 복도들에 부각하  
여 이채롭게 붙여놓은 그림장  
식들...  
우리보다 앞서 이곳을 찾았  
던 유럽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런 눈부신 궁전이 부  
모없는 아이들의 보금자리라  
니, 직접 보지 않았다면 백번  
을 듣는데도 믿지 못했을것  
이다. 예로부터 궁전이라고 하  
면 군주들의 위엄과 부귀의 상  
징으로 통용되어왔다. 그런데  
부유층의 자식들도 아닌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  
로 이런 궁전같은 집이 일떠  
섰다는 사실앞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평양육아원과 교육원을 본보  
기로 그후 원산육아원과 교육  
원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수  
많은 육아원과 교육원들이 흥  
통하게 일떠서고 원아들이 행  
복의 새 보금자리에 들어서는  
광경이 펼쳐져 세상을 감동시  
켰다.  
친부모의 사랑과 정에도 비  
길수 없는 한없이 따사롭고 은  
혜로운 위대한 아버지의 품,  
꼬마원 사회제도의 포근한 요  
람에서 얼마나 많은 《해연》  
이들이 자라나고있을까.  
서예축전장을 떠나는 나의  
귀전에는 소녀가 하던 말이 귀  
전에서 떠날줄 몰랐다.  
《우리 원아들을 제일로 아  
껴주시는 아버지원수님의 품,  
사회주의조국의 품이 세상에  
서 제일입니다.》  
재중동도 김영희

